

정원오 45 오세훈 34, 전재수 42 박형준 35, 김부겸 41 추경호 38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6·3 지방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본지 여론조사

경기 평택을 김용남 29 유의동 17 조국 23
부산 북갑 하정우 35 박민식 20 한동훈 31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영남에선 여야가 혼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대구 시장 등 광역단체장 3곳,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곳에 대해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무선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

오 민주당 후보가 45%,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4%로 오차범위(±3.5%포인트)를 벗어난 11%포인트 격차로 조사됐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을 포함한 전 권역에서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섰다.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 29%,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17%,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3%, 김재연 진보당 후보 4%,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7%로 집계됐다.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5%로 오차범위(±3.5%포인트) 수준에서 접전이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41%)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38%)가 맞붙은 대구시장 선거는 치열한 박빙 구도였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 3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0%, 한동훈 무소속 후보 31%로 하·한 후보가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의 혼전

양상이었다. 범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하정우 대 박민식'은 41% 대 32%, '하정우 대 한동훈'은 38%로 동물이었다. 장한익 케이스탯리서치 수석연구원은 "후보 등록 이후 첫 조사라 유동적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지중 결집에 따른 후보 간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진·박준규 기자
▶ 관계기사 4·5·6면

1시간 남기고 멈춘 '100조 파업'

삼전 노사 잠정합의, 총파업 유보
적자사업부도 1년간 성과급 추기로
22~27일 잠정안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 "내부 갈등으로 심려 송구"
사측 "합의사항 성실히 이행할 것"

'100조원대 피해 파업' 위험을 일단 피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으로 예정된 21일 0시를 단 한 시간여 앞두고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0일 오후 10시45분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노동부 경기 고용노동청에서 6시간가량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4시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그만큼 파국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노사 교섭대표는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후 같이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 피플팀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앞줄 왼쪽부터)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막판 교섭 팬 김 장관이 조정자 역할을 했다. 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다. 기술도, 노사 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했

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잠정합의도 출과 동시에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지침 3호를 발령해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여명구 반도체(DS) 피플팀장은 "이번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수원=손상배 기자, 이명근 기자 ▶ 2면 '타결'로 계속, 관계기사 3면

한국인 탄배 나포에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검토해보라"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지시했다. 이스라엘군이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 구호선 2척을 나포한 데 항의하면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4년 '전쟁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미국은 ICC 판사를 제재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번 발언이 한·미 관계의 결실물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 관계기사 8면



The JoongAng Plus

팩플 ▶ 18면
엔비디아, 텔레그램서 산다?
24시간 주식 거래소의 비밀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국산보청기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TV, 전화, 대화 잘 들리고 가격부담 적은 귓속형 국산 보청기를 보내드립니다.

난청은 뇌의 청각중추영역에서 어음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발생한다. 한번 저하된 어휘변별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난청임을 느낄 때 바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신 AI 인공지능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국산보청기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빠른 피드백 분석기로 불편한 피드백을 제거해주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크기와 강력해진 소리를 출력하고, 48채널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고음질의 사운드 필터링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기술력으로 우수한 사운드로 잡음을 줄여 가족과의 대화나 TV소리, 전화소리, 교회나 성당에서 설교와 강론도 깨끗하고 또렷하게 듣는 제품이다.

17년 내내 같은 장소, 총정액 4번 출구에 위치한 HC바이오텍에서 새롭게 출시한 AI 인공지능이 더해진 HC 귓속형 국산 보청기는 작은 크기에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보청기 사용자가 편안하게 듣고 향상된 말소리 이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TV, 전화, 대화, 강리가 또렷하게 잘 들리고, 가격 부담이 적고, 80~90대 어르신도 쉽게 사용하는 귓속형 보청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크기와 강력해진 소리 출력은 물론 하이브리드 소음관리™, 하이브리드 사운드 프로세싱™, 하이브리드 피드백 제거™, 말소리 밸런스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다.

수도권은 방문해서 충분히 체험 후 구입하면 되고, 방문할 여건이 안되시는 분은 방문체험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드리며, 방문체험 신청 할 여건도 안되는 분은 무료체험 신청을 하면 귓속형 보청기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로 무료체험 신청을 하세요! 제품문의 : 1566-0517

HC 보청기

AI 인공지능

48채널

고성능 마이크2개

볼륨 소리조절 자유지재

귀 잘안들리는 분이나 부모님이 안들리시는 분은 지금 무료체험 신청 하세요!

17년 내내 무료체험 하는 장소

어르신들...
수도권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저희 직원을 자택으로 방문시켜서 TV 소리, 전화, 가족간의 대화 등 충분히 체험하시고 구입하십시오. 단, 직접 체험하시고 구입하신 제품은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체험이라고 해서...
① 보청기를 파손하지 않아 주십시오.
② 2~3일 체험후 택배로 보내 주십시오.
③ 박스 포함 부품을 훼손하지 않아 주십시오.

충청도 사비리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32023-GN1-41-0020
▶ 접수번호 : 2023-04549
▶ 제조원 : 디만트 코리아(주) 판매처 : (주)HC바이오텍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신용카드 3~12개월 할부 가능
* 농협 301-0214-3526-61
<예금주 : (주)에치씨바이오텍>

구입문의 1566.0517